백두산

26호 - 주체91(2002)년 5월 10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김정일총비서 4.15 문학창작단에 감사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4.15문학창작단 창작가들과 일군들, 종업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이곳 창작단 창작가들은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내이며 사람들에게 삶과 투쟁의 진리를 새겨 주는 혁명소설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그들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장편소설로 각색하였으며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번영의 길≫, ≪비약의 나래≫, ≪개선≫, ≪푸른 산악≫, ≪강계정신≫, ≪총검을 들고≫, ≪계승자≫를 비롯한 10여편의 장편소설들을 창작하였다.

뿐만아니라 10여편의 외국문도서들을 번역출판하고 당이 맡겨 준 영예로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는 창작성과를 이룩하였다.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7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하철비서가 감사를 전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8일

장군님의 인민관

혁명일화 ≪장군님의 인민관≫이 새로 나왔다.

일화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지난 5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5.1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신 소식은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이미 알려 졌다.

그날의 현지시찰의 길에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믿음으로 심장을 끓이시는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의 위인상이 얼마나 뜨겁게 비꼈는가를 사람들은 다는 모를것이다.

그날 시찰을 마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해군사령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합창 ≪자랑하세 천하제일명장≫으로 시작된 공연의 작품들마다에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슬하에서 ≪제2의 선군나팔수≫로 자라난 군인가족들의 사상정신세계가 그대로 어려 있었다.

수령절대숭배의 열정이 뜨겁게 불 타오르고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 창조와 혁신의 정신이 나래치는 종목들을 보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남먼저 박수를 보내 주시며 훌륭하다고, 정말 잘한다고 거듭 치하도 해주시고 때로는 깊은 추억의 세계에 잠기기도 하시였다.

장내에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격의 파도가 세차게 일렁이는 가운데 공연은 고조를 이루어 설화와 합창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가 무대에 올랐다.

절절하게 울리는 노래를 들으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깊은 추억의 세계에 잠기시였다.

력사에 류례 없는 고난과 시련의 언덕을 넘고 헤쳐 온 선군장정의 길에서 직접 체험하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진정이 가슴 사무치게 안겨 와 장군님의 안광에는 후더운 빛이 어리였다.

풀뿌리를 씹으면서도 자신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 온 불사신의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떠 오르고 령도자는 군대와 인민을 믿고 군대와 인민은 오로지 령도자만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며 만난을 뚫고 승리해 온 7년세월의 그 만단사연이 다 회억되여 격정을 누르지 못하시는 장군님의 눈가는 뜨겁게 젖어 들었다.

노래를 부르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도 노래를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는 관람자들도 선군혁명 천만리길에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으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어려 와 쏟아 지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공연이 끝난 후 밖으로 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연을 정말 잘한다고, 공연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연에서 받은 감동이 너무도 강렬하여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윽고 수행한 일군들을 둘러 보시며 동무들, 보시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바로 이런 군대이고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은 이처럼 티없이 순결하고 진실합니다. 이런 군대와 인민이 있기때문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는것입니다.
나는 오늘 군인가족들의 열렬한 사상정신세계가 반영된 공연을 보면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금 굳게 다지였습니다.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어떤 때는 너무 힘 들어 좀 쉬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저런 인민을 생각하면 순간도 휴식할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우리 대에 한가지라도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마디마디가 가슴을 치는 그 말씀에 일군들은 저도 모르게 눈굽을 적시였다.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이런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합니다라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인민존대, 인민사랑이 마디마디에 비껴 흐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계속되였다.

≪내가 늘 말하지만 인민은 우리의 선생이고 스승입니다. 일군들은 언제나 인민에게서 배워야 하며 인민을 무한히 존경하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

이 세상에 인민대중처럼 위대하고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호령하고 인민의 존엄을 침해하는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고 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인민관이 뜨겁게 맥박치는 말씀이였다.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 바로 그것이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그이께서 발휘하시는 강의한 의지의 원천이다.

전 세계로동계급의 국제적명절인 5.1절날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 진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며 일군들은 이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8일

2 종합
- 조선에서 선군정치의 위력
- ≪아리랑≫의 충격
- **김정일**장군님을 열렬히 흠모
-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습을 막자
- 북과의 대결을 고취하는 ≪붕괴위험≫설
- 각계에서 ≪금강산댐≫ 붕괴소동을 규탄
- 구일본이 감행한 범죄에 실천적대책 필요

4 노작
-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4)

6 세기와 더불어
- 8장 1절 이광 (3)

8 칭송
- 믿음은 가장 힘있는 교양
- 나는 ≪**김정일**거리≫를 지나왔다

9 노동신문사설
- 북남공동선언따라 조국통일대행진에 떨쳐 나서자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뜨거운 인간애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학생운동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자
- 반북반통일적인 망발을 떠들어대는 한나라당
-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

13 투쟁보도
-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운동기간
-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출마자 확정
- 노사모, 공식 사과 없으면 대선 때까지 1인 시위
- 자치연대, 지방선거에 약190명 출마

15 운동강좌
-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5)

조선에서 선군정치의 위력

≪로동신문≫ 8일부는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만들어 조국을 보위하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하여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독특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는 우리 조국을 무적필승의 강군을 가진 금성철벽의 나라로 억척같이 다져 나가는 백승의 기치이며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주체적력량을 비상히 강화해 나가는 위력한 무기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이의 선군정치는 새 세기 경제강국건설을 힘 있게 떠미는 비약의 원동력이라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전군이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로 튼튼히 준비되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일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 지구상의 그 어떤 적도 일격에 짓뭉개버릴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천하무적의 군대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 조선인민군이다.

오늘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이 전 인민적사상정신으로 되고 군대와 인민이 물심량면으로 서로 원호하는 미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고 있으며 전체 인민이 총대와 같이 견결한 혁명적원칙성을 지니고 군대와 생사운명을 같이 해나가고 있다.

론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혁명과 건설을 우리자체의 힘으로 조선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해나갈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정치이며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주는 필승의 보검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8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충격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충격이 대단하다.

만사람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시작된 공연은 시종 관람자들을 작품의 세계, 신비의 무아경속에 빠져 들게 하고 있다.

력사와 더불어 전해 오면서 민족의 감정과 넋으로 정화된 민요 ≪아리랑≫군을 비롯한 명곡들과 경기장의 거대한 공간을 메우며 천태만상의 황홀경을 펼치는 체조대와 무용대, 배경대, 하늘땅을 엇바꾸며 종횡무진하는 레이자조명, 전광장치물들의 불빛 등이 사람들을 완전히 매혹시키고 있다.

관람자들의 눈길은 경쾌한 취주악에 맞추어 높은 기교의 체조동작과 흥겨운 춤판을 펼친 경기장바닥과 변화무쌍한 배경대, 교예배우들의 공중무대로 연해연방 오르내리고 있다.

이것을 보면 저것을 못 볼것 같고 저것을 보면 이것을 못 볼것 같은 조바심으로 관람자들은 시간의 흐름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공연이 끝나도 불야성을 이룬 경기장 안팎은 자리를 뜨지 못하는 격동된 관람자들로 오래동안 흥성인다.

인류가 도달한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성과들을 집대성하여 시대의 요구와 지향, 사상과 감정을 가장 훌륭히 반영한 작품은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 내고 있다.

－꿈인가 생시인가？ 인류문화의 극치를 보았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최고의 대걸작이다.

－조선에서 또 하나의 ≪인공지구위성≫을 쏘아 올린것과 같다.

－거대한 이 작품은 그 무엇이나 하면 한다는 조선의 결단과 의지의 반영이다.

이것은 공연을 본 네팔 까뜨만두시 시장과 브루네이 다루쌀람외무성 상임비서, 조선주재 에짚트대사, 일본관광단 단원 아오이 쥬지로를 비롯한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반향이다.

조선중앙통신 5월 8일

퇴역중령 박인성씨,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열렬히 흠모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살고 있는 퇴역중령 박인성씨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그는 동료들과 함께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경축 노농적위대열병식을 TV로 시청하면서 세계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엄하고 훌륭한 열병식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규무력도 아닌 민간무력의 열병식이 이처럼 굉장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주석단을 우러러 도도히 굽이쳐가는 보무 당당한 열병식의 대오, 하늘을 찌를 듯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 열병대오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 정말 매 장면, 장면이 큰 충격과 감동을 준다. 이런 열병식을 통해 이북이 영도자와 군민이 일심일체화된 철통같은 사회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실감할 수 있다.≫

박씨는 이어 ≪오늘 초대강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이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이북은 그 어떤 대적도 쳐부수고 민족의 자주권을 철옹성으로 지켜가는 영원한 승리자로 위용떨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5월 8일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습을 막을데 대해 강조

≪민주조선≫이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와 인민들은 높은 각성을 가지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셔 버리며 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7일부 신문은 력사적교훈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에 각성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문을 열어 놓으면 혁명을 하루아침에 말아 먹게 되며 나라와 민족이 망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오늘의 정세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철저히 경계하고 막아 나설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문은 그 과업에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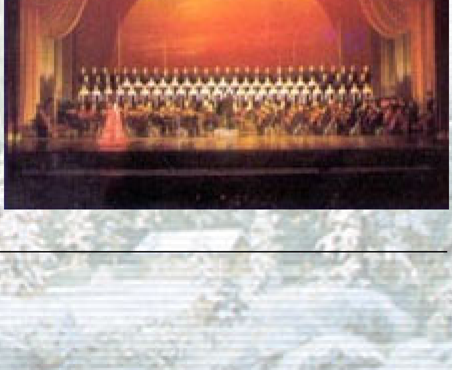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기 위하여서는 인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며 부르죠아사상문화가 침투할수 있는 통로를 철저히 끊어 버려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특히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습을 막는데서 민족의 고유한 문화전통과 우수성을 살려 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자기 민족의 취미와 감정에 맞는 문화전통과 풍습, 생활방식을 적극 살리고 민족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것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습을 막는데서 위력한 방패로 된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모기장을 든든히 치면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은 무맥해 진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8일



북과의 대결을 고취하는 안변 청년발전소언제 ≪붕괴위험≫설

남조선의 일부 언론들이 미국위성촬영자료에 빙자하여 우리 공화국의 안변청년발전소언제의 ≪붕괴위험≫설을 퍼뜨리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이 문제를 물망에 올리며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의 ≪론의≫니 뭐니 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

≪로동신문≫ 8일부는 그 어떤 신빙성도 없는 이러한 소동은 북남화해분위기를 깨고 련북통일에로 흐르는 남조선민심을 반공화국대결에로 되돌려 세우려는 모략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안변청년발전소언제 ≪붕괴위험≫광고는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해 고귀한 피와 땀을 바치는 우리의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정세를 북남대결에로 몰아 가는 엄중한 도발이다.

이것은 언론이 불집을 일구고 당국이 이에 합세해 나서는 방법으로 정세를 역전시키려는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계획적인 책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한다.

남측 당국이나 언론이 대결과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할수 없다.

최근 최성홍이와 같은 자들이 입 삐뚤어진 허튼 소리들을 줴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반공화국모략, 대결소동이 벌어 지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엄중시 하고 있다.

남측이 조선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가 던져 주는 날조된 자료를 가지고 떠드는것은 온당치 못한것이며 그것은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조선중앙통신 5월 8일

위성촬영한 금강산댐

각계에서 당국의 ≪금강산댐≫ 붕괴소동을 규탄

각계에서 최근 당국이 북의 ≪금강산댐≫이 붕괴될 수 있다느니 뭐니 하며 이른바 ≪평화의 댐≫증축공사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통일연대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국이 미국위성이 촬영했다는 ≪금강산댐≫의 사진자료를 놓고 ≪금강산댐≫이 당장 무너질 것처럼 복작소동을 피우면서 ≪평화의 댐≫증축공사니 뭐니 하고 떠들고 있는데 이는 남북관계를 또다시 악화시켜보려는 책동이라고 생각한다.

≪평화의 댐≫이란 것은 당초 5공때 국민의 반정부투쟁기운을 딴데로 돌려보기 위해 당시 전두환일당이 고안해낸 정권위기수습용이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당국이 이제 와서 미국이 제공했다는 위성촬용자료를 가지고 ≪금강산댐≫붕괴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며 남북관계를 대결에로 돌려세우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는 미국이 제공했다는 거짓자료를 가지고 북을 심히 자극하는 복작소동을 벌이는 것은 6.15공동선언에 위배되는 반민족적 발상이라고 본다. 당국의 무분별한 소동때문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가 무산되지 않았는가. 당국이 6.15공동선언과 4.5공동보도문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미국의 간교한 술책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구국의 소리 뉴스 5월 8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보내는 편지

구일본이 감행한 범죄에 실천적대책 필요, 아시아지역토론회 참가자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매리 로빈손귀하

우리들 일본의 과거범죄와 그 책임을 추궁하는 아시아지역의 여러 단체 대표들과 피해자, 법률가, 연구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를 진행하고 귀하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세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귀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귀하도 아는바와 같이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에서 구일본이 감행한 강제련행과 강제로동, 성노예범죄 등 전시하에서의 범죄행위와 재일조선인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들이 정식 론의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근 10년이 되여 옵니다.

이 기간 진행된 여러 차례의 회의들에서는 구 일본군의 행위들을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일본당국에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의로운 노력들은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우리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희망으로, 고무로 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이 모든 정당한 요구와 권고들을 하나도 받아 들이지 않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과거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회복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인생말년을 고통과 울분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

일본당국은 한편 국제사회계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력사외곡행위와 ≪야스구니진쟈≫참배, ≪자위대≫무력의 해외파견을 위한 법제화를 강행함으로써 범죄적인 과거를 또다시 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당국은 가장 큰 피해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아무런 사죄와 보상도 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전후 반세기이상 적대시정책을 실시하여 조선사람들을 극도로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국제사회가 초보적인 인간성과 도덕마저 상실하고 또다시 군국주의망령을 되살리고 있는 일본당국의 부당한 행위를 절대로 용인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귀하와 유엔의 권위 있는 기구들이 현 일본당국의 오만하고 범죄적인 행위가 가져 오게 될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심중한 주목을 돌리고 일본정부가 하루빨리 과거 전시죄행들에 대하여 공식사죄하고 국가적인 보상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하고 실천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1.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안에 이미 제기된 보고와 권고, 결의에 기초하여 일본의 전시죄행을 추궁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분과를 따로 설치하며

2.아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구일본에 의한 피해상황과 일본에 보관되여 있는 일체 과거문건 및 자료들을 조사장악하기 위한 조사단을 조직하고 활동을 보장하여 주며

3.귀하와 유엔의 책임적인 지위에 있는 성원들이 일본정부의 총리를 직접 만나 구일본의 반인륜적범죄행위와 관련한 유엔의 해당 기구들의 권고와 결의들을 진지하게 대하고 시급히 리행하도록 해줄것을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여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확고한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귀하와 인권옹호를 위한 유엔의 여러 기구들이 일본의 과거범죄를 추궁하는 정의로운 활동을 계속 벌려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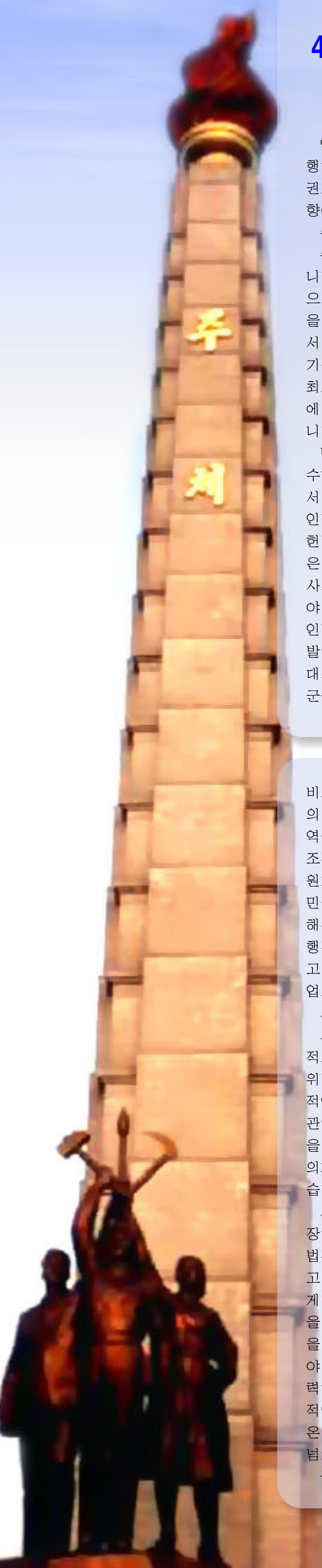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 참가자 일동
2002년 5월 4일 평 양

조선중앙통신 5월 5일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4)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정권기관 일군 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81(1992)년 12월 21일



4. 인민정권기관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자면 각급 정권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정권기관 사업을 발전하는 현실과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야 합니다.

주권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주권기관은 인민대중의 진정한 대표기관입니다. 주권기관은 인민대중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인민대중의 이익에 맞게 주권을 행사합니다. 주권기관은 정권기관 체계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며 주권은 오직 주권기관에 의하여 대표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의 활동에 의하여 주권의 유일성과 완전성이 담보됩니다.

민주주의적 선거원칙에 따라 각계각층의 우수한 대표들로 구성된 인민회의는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입니다.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인민회의를 사회주의헌법의 요구에 맞게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높은 수준에서 운영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법령과 결정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인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들은 인민회의에서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발언권과 결의권을 옳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대의원들은 늘 선거자들과 군중 속에 들어가 군중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하며 그들을 당과 국가의 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인민위원회는 상설적인 주권기관이며 그 활동에서 기본은 주권적 지도입니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국가의 법령, 명령, 정령, 결정, 지시와 지방인민회의 결정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지도하고 감독 통제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령과 결정이 채택되어도 인민위원회가 주권적 지도를 잘하지 못하면 그것이 정확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국가와 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행정경제기관의 사업과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올바로 장악지도하여야 합니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소집하고 운영하며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문제를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토의 결정하여야 합니다.

인민위원회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앙인민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으며 정권기관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무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잘하는 한편 지방인민위원회사업과 사법검찰기관사업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행정적 집행기관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행정적 집행기관은 주권기관의 법령, 명령, 정령, 결정, 지시에 기초하여 사회생활을 직접 조직하고 관리하며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사회가 보다 조직화되고 사회생활이 다양해지는 것만큼 행정적 집행기관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사회주의제도를 옳바로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입니다. 정무원은 당과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나라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 지도합니다. 정무원은 나라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다 틀어쥐고 지도하여야 하지만 경제사업에 대한 지위에 기본을 두어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는 경제사령부인 정무원에 집중하여야 하며 거기에서 조직되고 포치되어야 합니다. 정무원은 전반적 경제사업에 대한 작전과 통일적 지휘를 바로하고 국가 행정규율을 강하게 세워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무원에서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위원회,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입니다. 위원회, 부는 정무원의 지도밑에 자기의 임무와 권한에 따라 해당부문 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관리하여야 합니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해당단위의 전반적 관리기관입니다. 해당 지방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은 지방행정기관의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해당지역의 공업, 건설, 교육, 보건, 인민봉사, 지방무역을 비롯하여 여러부문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해당 지역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투자하여야 합니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행정규율을 철저히 확립하고 행정적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잘해나가야 합니다.

사법검찰기관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사법검찰기관은 당과 국가의 정책 집행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계급적원쑤들의 책동과 온갖 위법행위로부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옹호보위하는 인민정권은 권력기관입니다. 사법검찰기관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인민의 주권과 헌법적권리,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사회재산을 튼튼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법검찰기관은 당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사법검찰기관은 사회주의사회관리질서를 침해하고 국가사회재산을 탐오낭비하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며 공민의 권리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적극 보호하고 여러 가지 범죄와 위법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법검찰기관은 사회안전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비사회주의적인 현상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여 온 사회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군정권기관 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특별히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군정권기관은 인민정권기관의 말단기관이며 군은 지방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인 단위이고 지방살림살이를 직접 맡아하는 기본단위입니다. 군정권기관 사업이 잘되면 군이 강화되고 나아가서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군정권기관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당면한 요구와 전망적인 요구에 맞게 군을 튼튼히 꾸리고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을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군정권기관은 이미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모범준법군칭호쟁취운동과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쟁취운동, 군민일치모범군칭호쟁취운동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모범군칭호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리, 동, 사무소와 인민반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붉은기 동, 인민반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가정을 혁명화하며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고 관리하며 사회질서를 유지강화하는 사업을 더 잘해나가야 합니다.

중앙과 도의 정권기관은 군정권기관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군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인민정권활동의 기본방식입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 본성을 구현한 민주주의이며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인민정권기관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정권사업에 널리 참가시키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제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혁명적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인민정권기관 활동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요구입니다. 혁명적 군중노선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인민정권활동의 기본원칙입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이며 그들 자신의 정치입니다. 인민정권기관 활동에서 혁명적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목적 의식적으로 떨쳐나설 수 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은 자기 활동에서 인민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아야 하며 모든 것을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시켜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자기앞에 나선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멀리하고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좌우명으로 삼고 늘 군중 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군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

당과 수령의 영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정권의 전도는 양양하며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인민정권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개선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입니다.

현시기 정권기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는 것입니다. 인민정권기관은 인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기관이 아니라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보장하여주는 복무기관이며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관료가 아니라 인민의 심부름군입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가 허용되면 인민의 이익이 침해되고 정권기관이 인민의 배척과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교양사업을 강화하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제때에 강한 투쟁을 벌여 그것이 자라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 속에서 본위주의와 무책임성을 반대하는 투쟁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본위주의는 당과 국가의 이익보다 자기 단위, 자기 지방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릇된 사상관점입니다. 개인 이기주의와 공명 출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본위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국가의 중앙집권적 관리질서를 문란시키고 당정책 관철을 저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 속에서 부서 본위주의, 기관 본위주의, 지방 본위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여 그것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사명을 지닌 정권기관 일군들에게 있어서 자기 사업에 대한 무책임성은 곧 인민의 신임과 기대에 대한 배반으로 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걸린 문제를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끝까지 풀어나가야 합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것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 구호입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언제나 이 구호의 요구대로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발양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의 사업체계를 개선 완성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의 사업체계를 발전하는 현실과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여야 인민정권기관이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올바로 구현하는 것은 인민정권기관의 사업체계를 개선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입니다. 인민의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은 인민정권의 통일적 지도에 의하여 보장되며 인민정권의 통일적 지도는 중앙집권제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중앙집권제에 의거한 민주주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이며 인민에게 민주주의를 더 잘 보장해 주는 중앙집권제만이 참다운 중앙집권제입니다. 인민정권기관의 사업체계는 중앙집권제를 중시하고 앞세우는 기초위에서 민주주의를 옳게 발양시킬 수 있게 세워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구현하는 것과 함께 사업규범과 직능을 잘 만들고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국가관리의 정규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국가의 법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법은 모든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며 인민정권활동의 기본무기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조직적으로 생활하고 그것이 의무적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공화국 영토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국가의 법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합니다. 사회에 법질서가 철저히 서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인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와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부문 법과 규정을 새로 만들며 이미 있는 법규도 더욱 완성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의 법령, 결정,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는 국가행정규율을 강하게 세우며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정치사상수준과 실무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정권기관 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입니다. 인민정권기관사업의 성과여부는 정권기관 일군들이 정치사상수준과 실무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높아야 합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첫째가는 품성입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지녀야 혁명과 건설에서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생활화하여 그것이 가장 공고하고 순결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실천투쟁속에서 높이 발양되어야 합니다. 당과 수령이 내놓는 노선과 방침을 옹호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인민대중을 위한 투쟁이며 그것을 떠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인민의 이익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길에서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높은 지휘능력, 혁명적 전개력을 가져야 합니다. 발전하는 현실은 정권기관 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이론과 방법론을 체득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실력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우고 꾸준히 학습하며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 성실히 배워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 양성사업은 정권의 전도와 관련되는 책임적인 사업입니다.

정권기관 일군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는데서 인민경제대학을 비롯한 양성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나라의 민족간부양성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나라의 민족간부양성기지인 전문양성기관과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변함없는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전개하여나갈 수 있는 실무능력을 소유한 유능한 일군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잘 관철하도록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에 대한 지도에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정치방식인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정권기관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하고 원칙적인 문제는 다 당위원회에서 토의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지도, 정책적 지도로 되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에 대한 지도에서 행정대행을 없애고 일군들의 주관과 독단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정권기관 일군들을 제쳐놓고 행정사업을 가로타서는 안됩니다.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에 대한 지도에서 행정대행을 없애고 일군들의 주관과 독단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정권기관일군들을 제쳐놓고 행정사업을 가로타서는 안됩니다. 당조직들은 정권기관 일군들이 사업에서 자립성과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게 사업상 권위도 높여주고 사업조건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대열을 잘 꾸려주어야 합니다. 정권기관 일군대열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일군,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이론실무적으로 준비된 능력있는 일군으로 꾸려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정권기관 일군들을 꾸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이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가는 참된 일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정권기관 일군들의 당성을 단련하는 데 특별한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당성이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사상입니다. 당조직들은 정권기관 일군들이 당생활지도를 당성 단련에 기본을 두고 실속있게 하여 그들이 당이 맡겨준 영예로운 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과 수령의 영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정권의 전도는 양양하며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인민정권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역사적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의 복무자인 인민정권을 강화하여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데서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권기관 일군들에 대한 당의 신임과 기대는 큽니다.

나는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을 지니고 자기 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끝)

3권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1. 이광
2. 오의성과의 담판
3. 동녕현성전투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5. 마촌작전
6. 밀림속의 병기창
7. 영생의 꽃

1. 이 광 (3)

우리가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한 것은 이광이 흥륭촌에 와 있을 때였다. 병상에서 일어나 철주와 함께 유격대오를 찾아온 어머니는 이광이 메고 있던 총을 만져보면서 이런 총을 가져야 진짜 싸움을 할 수 있다. 독립군처럼 닭다리 같은 총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일본놈의 군대를 쳐부수겠나, 너희들이 군대를 만들고 총 멘 것을 보니 평생을 두고 쌓인 한이 다 풀린다. 너희 어머니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어머니들은 자식이 머저리 구실을 하거나 몹쓸 짓을 하면 가슴이 아파울지만 나라를 위해 총을 메고 싸움에 나선 아들들을 보면 장해서 눈물을 짓는다고 하였다. 이광은 왕청에 돌아가서 구국군과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우리가 안도에서 우 사령과의 합작을 성공에로 이끈 것은 반일부대공작의 좋은 경험으로 되었다. 시초의 반일부대공작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성과도 적지 않았다. 많은 구국군 부대들이 우리와의 반제공동전선에 적극적으로 호응해나섰다. 구국군 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하는데서 주패장은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다. 그런데 좌경이 이 통일전선을 방해하였다. 그들에 제창한 ≪상층타도, 하층쟁취≫의 모험주의적 구호는 반일부대 상층의 강한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고 적지않은 구국군 지휘관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자들을 경계하거나 탄압학살하는 길에 들어서게 하였다. 이런 때에 이광이 반일부대 공작에 뛰어든 것은 어느모로 보나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이광은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위하여 거주지도 북하마탕으로부터 태평구로 옮겼다. 그때 나는 태평구에 있는 그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다. 300호 가량의 농호를 가진 태평촌은 지리적으로는 소왕청, 요영구, 노흑산을 연결하는 삼각지점의 중심에 놓여있는 마을이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소만국경이 있었다. 이 동네에서 나자구까지는 20-30리 가량 되었다. 구국군의 중요 집결지들이 다 태평구 가까이에 있었다. 이광이 지휘한 별동대

리광

의 주둔지는 나자구 시내에서 5리 가량 떨어진 잔창거우였다. 이광의 집은 태평구 본부락 강기슭의 오르막 경사지에 외따로 떨어져 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그 집 옆에 있던 용드레우물이다. 그래서 이광이네 집을 용드레집이라고 불렀다. 내가 이 우물에서 물을 여러 번 마셨다.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땀을 철철 흘리며 집앞에 나타나면 이광이 용드레우물에서 찬물을 한두레박 떠가지고 와 나에게 권하곤 했는데 그 물이 별맛이였다. 나는 나자구에 갈 때마다 태평구에 들려 이광의 부모들에게 꼭꼭 문안인사를 드리곤 하였다. 우리가 주보중, 진한장, 호진민, 왕윤성 등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구국군과의 통일전선문제를 토의한 마지막 반일병사위원회도 이광의 집에서 하였다. 이광은 소왕청방어전투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대소 전투들에서 지휘관으로서의 높은 수완과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가 발휘한 실천적 모범은 구국군병사들을 감화시켰으며 군사정치일군으로서의 그의 명성은 동만의 광범한 민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별동대를 반만항일의 진정한 무장력으로 신임하게 된 오의성은 이광을 구국군전방사령부 보위대대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경위대원들까지 붙여주었다. 그 후 이광은 구국군과의 연합항일을 위하여 동산호와 연계를 가졌다. 반일을 한다고 무장을 들기는 하였으나 동산호는 이미 토비로 전락된 자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적잖은 사람들은 토비와 마적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었다. 만주지방에는 예로부터 마적이 많았다. 청나라 말기에 관내로부터 많은 한족들이 산해관을 넘어 만주지방으로 흘러들어올 때 이 이주민들의 침습으로부터 농토를 지키고 조상전래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고장 사람들은 자위적인 무장대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일본사람들이 마적이라고 명명한 만주에서의 의적의 시작이었다.

마적단은 ≪산적≫이나 ≪유적≫과 같은 잡스러운 도적떼와는 달리 자기식의 법도를 갖춘 의적으로 행세하였으며 남의 재물에 대한 강도, 강탈행위를 추구하지 않았다. 마적사회는 중앙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 권력에 대하여 저항적이었다. 마적생활은 무장을 떼어놓고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무장을 휴대하고 살아왔다. 그런 생활은 사람들속에서 일종의 부러움과 동경심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여표남비≫라는 말이 만주지방에서 공연히 유행되었겠는가. ≪여표남비≫란 여자는 창녀가 되고 남자는 비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마적사회의 엄격한 법도가 물론 어느 때나 다 존중시된 것은 아니였다. 적잖은 마적부대는 생존과정에 부패타락하여 토비로도 되었다. 어느 것이 의적이고 어느 것이 토비인지 정체를 똑똑히 판단할 수 없는 성격이 모호한 마적단들도 있었다. 적잖은 비적들은 의적으로 행세하였다.

의적의 탈을 쓴 비적떼들이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과 군벌들에게 정치적으로 매수이용되어 무지막지한 살육을 감행할 때 그 피해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였다. 반일부대공작 과정에서 발로된 좌경분자들의 ≪상층타도≫전략으로 하여 많은 구국군 지휘관들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원한과 반감에 사무쳐 있을 때 그것을 재빨리 포착하고 반일역량의 내분에 이용한 것은 일제의 모략가들이였다. ≪이이제이≫나 ≪이비정비≫는 모략의 능수이고 이간의 명수인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남의 손을 빌어 반일역량들끼리 서로 싸우고 물어뜯어 지리멸렬케 하는 악명높은 수법이었다.

일제는 동산호가 이광 별동대를 전원 참살할 때에도 이 수법을 적용하였다. 그 첫 작업으로 이광에 대한 귀순공작에 달라붙었다. 이광을 잡으면 많은 상금을 주며 이광 자신이 귀순하면 높은 벼슬을 준다는 오만무례한 통첩장이 사방에 나붙었다. 오의성의 부대를 와해시키자면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막아야 하는데 그 영향을 주입하는 장본인이 이광이라고 그들은 단정하였다. 이광의 별동대는 구국군의 심장부에 깊숙이 들어박힌 통일전선의 돌격대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만하면 일본 정탐기관들이 그의 금새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토비의 전형인 동산호는 정치적으로 암둔한데다가 포악하고 변덕스러운 자여서 일본의 모략가들에게 쉽게 매수당하였다. 이광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던 그는 일제가 자준 각본대로 노흑산에서 연합작접 문제와 관련한 담판을 하자고 미끼를 던졌다. 실책은 이광이 이 미끼를 덥석 받아문 것이었다. 그는 동산호가 일제의 개로 전락된 사실을 모르고 구국군 전방사령부 비서장 왕성복을 비롯한 10여명의 별동대원들과 함께 노흑산으로 떠났다. 당조직에서는 동산호와 같은 무지막지한 토비대장과 접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니 심사숙고하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이광은 반제공동전선노선을 관철하지 못하면 혁명을 더 전진시키지 못하는데 신변이 위태롭다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하겠다고 하면서 끝끝내 초지를 굽히지 않았다.

동산호는 연회까지 차려 이광 일행을 대접하고는 그들을 모조리 학살하였다. 살아서 돌아온 것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토비들은 이광이네 일행이 다 죽은 줄로 알고 학살현장에 그 사람을 그냥 내버리고 달아났는데 우리가 가서 구원해주었다. 그런데 그도 훗날 나자구와 노흑산 사이의 수림지대에서 전사하였다.

이광은 당년 29살의 청춘으로 불귀의 객이 되었다. 그의 잘못은 경각성이 없은 것이었다. 동산호와 통일전선을 하려면 사상적으로 그들을 개조시켜야겠는데 그는 그저 인간적으로 친교를 맺는 방법으로 통일전선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노흑산 부근의 산막에서 붙잡혀 학살당하였다.

나는 이광의 죽음앞에서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나의 감정을 지배한 것은 부대를 데리고 가서 동산호 일단을 당장 요정내고 싶은 복수심뿐이었다. 반일부대들과의 공동전선을 이룩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앞에 부과된 시대적 의무이고 과제이며 총전략이라는 이성의 목소리만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런 감정의 분출을 자제하지 못하고 유혈적인 복수전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온 동만이 동산호의 천인공노할 죄행을 절규하며 피는 피로써 갚자고 부르짖었다. 좌경망동분자들은 군대

→

리광의 가족사진
(뒤줄 오른쪽이 리광)

가 출동하여 이광을 참살할 계급적 원수들에게 쓴맛을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다. 유격대가 동산호를 치지 않는 것은 우경이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반제공동전선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위업은 이광의 희생으로 하여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았다. 우리는 1000명의 적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동지를 잃었다. 적들은 내 곁에서 조선혁명을 떼메고 나갈 또 하나의 동량지재를 앗아간 것이었다.

나는 살점을 사정없이 뜯어내는 것 같은 아픔 때문에 입술을 깨물고 오열을 참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항일전쟁을 시작한 지 한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전우들이 벌써 내 곁에서 떠나갔는가. 어찌하여 나의 친구들은 정들기 바쁘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세상으로 이렇게도 총총히 가버리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숙명이란 말인가.

나는 주먹을 부르쥐고 이광과 함께 항일대전의 전략을 의논하던 소왕청하의 기슭을 정처없니 거닐면서 나를 끝없는 슬픔의 심연속으로 몰아넣는 운명의 무자비한 처사를 저주하고 또 저주하였다. 그리고 결심하였다.

이광의 죽음을 헛되이 말자. 이광이 그토록 많은 노고와 정력을 바친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킨다면 그도 지하에서 기뻐해 마지않을 것이 아닌가.

이광의 죽음은 나로 하여금 오의성과의 담판을 서두르게 하였다. 그 죽음은 나를 통일전선의 길에서 물러서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게, 더는 후퇴할 수도 움직일 수고 없게 바짝 접근시켜 놓았다.

오의성을 찾아가자! 오의성과의 담판에 성공하면 이광의 원한을 풀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자구에로 백일행군을 다그쳤다. 이광의 가족을 만나 조상이라도 하려고 태평촌에 잠깐 들렸더니 그의 부인 공숙자가 두 팔을 벌이고 나를 막아나섰다.

≪장군님, 그리로 가시면 안됩니다. 거긴 장군님이 가실 데가 아닙니다. 애아버지도 그러다가…장군님 부탁입니다.≫

눈물에 젖은 그 부인의 애절한 호소가 나의 백인행군을 재촉해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부인은 7-8살쯤 됨직한 사내애를 품에 꼭 끌어안고 옷고름으로 눈굽을 찍어내며 소리없이 어깨를 떨고 있었다. 여인의 품에 안겨있던 그 애가 바로 이광의 아들 이보천이였다.

그도 눈물이 글썽해서 나를 빤해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나타날 때면 토방돌앞에서 놀다가도 매번 ≪성주 삼촌!≫하고 부르며 사립문 밖으로 뛰어나오곤 하던 이보천이였다. 언제인가는 그가 나한테 매달려 풀메뚜기를 만들어달라고 성가시게 군 적도 있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노상에 뛰어나온 이보천을 보니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자책이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저 애가 이전날처럼 내 몸에 칭칭 휘감기며 풀메뚜기를 만들어 달라고 다시금 떼를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용기마저 없다면 나를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던 지난날의 철부지답게 내 어깨를 디디고 올라가 목마를 태워달라고 조르기만이라도 한다면 이 마음이 얼마나 가벼울까.

그런데 보천이는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뚤렁뚤렁 떨구고 있었다. 내앞에는 푸접이 좋고 양기가 발발한 장난꾸러기 이보천이 아니라 칠색무지개 같은 동요시절과 결별하고 새로운 고뇌의 세계에 앞질러 뛰어든 침울하고 소심한 사내아이가 서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 어린것에게서 풀메뚜기를 탐내던 낭만의 세계를 완전히 앗아갔다. 그러고보면 보천이는 10살이 되기도 전에 벌써 양친을 다 잃은 것으로 된다.

보천이는 이제 두 번 다시 나에게 그런 주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연약한 넋속에는 오로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사변만이 가득 차 있다.

나는 이보천의 얼굴을 속절없이 굽어보았다.

≪보천아, 잘 있거라. 내 이제 아버지의 원쑤를 갚고 돌아오마.≫

내 입에서는 하마터면 이런 말이 튀어나올 뻔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와는 비슷하지도 않은 말로 어린 보천에게 청을 하였다.

≪보천아. 이 삼촌은 지금 목이 말라서 못 견디겠구나. 내가 집에 올 때마다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냉수를 권하곤 했는데 오늘은 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물 한사발 떠다주지 않겠니?≫

몽상에 잠긴 듯하던 이보천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생기가 돈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는 바람처럼 집으로 사라졌다가 놋대접에 용드레우물의 물을 퍼담아가지고 다시금 바람처럼 내앞에 나타났다. 이 별치 않은 움직임은 그의 기분상태를 일변시킨 듯 싶었다.

놋대접속에서 출렁거리는 물을 보니 새삼스럽게 이광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자그마한 수면 위에 이광의 얼굴과 보천의 얼굴이 겹쳐 그려질 때 내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질 뻔하였다.

나는 어린것의 성의를 생각하여 대접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셔버렸다. 보천이는 코 밑을 훔치고 나서 대접을 들고 정다운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대오에 출발구령을 내렸다.

그런데 내가 작별인사를 하려는 그 순간 보천이는 갑자기 집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보천이는 사라질 때와 같은 속도로 쏜살같이 행길에 되돌아와 나의 백마에게 한 줌의 귀밀을 권하는 것이었다. 그 말없는 행동이 마침내 나로 하여금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놓게 하고야 말았다.

우리가 강을 건너 멀리 갈 때까지도 보천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강변에 그냥 서 있었다. 말안장위에 앉아 고개를 돌리니 그 애의 모습이 하얀 점으로 아물거리고 있었다.

≪보천아, 너도 크거들랑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혁명을 해야 한다!≫

나는 멀리서 손을 높이 들었다 내리며 마음속으로 보천이의 장래를 축복하였다. 그 후 유격구를 해산하고 제2차 북만원정을 시작했을 때에도 나는 이광의 집에 일주일 가량 머물러 있으면서 공숙자와 함께 보천이의 장래 문제를 두고 많은 논의를 하였다.

그 보천이가 후에는 나의 염원대로 혁명가로 성장하였다. 임구에서 철도노동을 하던 그는 일제의 군수열차를 습격하다가 발각되어 두 해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다. 이것은 그가 20살도 채 되지 않았던 때에 있은 일이였다. 해방과 함께 감옥문을 나선 이보천은 할아버지의 태가 묻힌 조국의 땅과 하늘과 물이 그리워 그 해 가을 단동을 거쳐 평양, 서울까지 밟아보고 나서 다시 임구로 돌아갔다. 그 여행은 20살의 다감하고 전도양양한 청년 이보천의 마음속에 뚜렷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아버지의 친구들이 있는 조국에서 건국의 불도가니속에 심신을 깊이 잠그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압록강 철교를 건너갔다. 그 조국에는 아버지가 바라던 새 세상이 있었고 그 자신이 어려서부터 목마르게 기다리고 꿈꾸던 낙원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낙원이 다섯 해 후에는 전쟁의 화염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청소한 공화국은 자기의 존립을 위하여 결사적인 싸움을 벌였다.

수천 리 밖에서 그 초연내를 맡은 중국인민해방군 중대장 이보천은 용약 조선전선에서 탄원해 나와 인민군대에 편입하였다. 그는 한 기계화사단에서 지휘관으로 싸우다가 1950년 가을 애석하게도 희생되었다.

이광의 불같은 생애와 혁명활동을 남다르게 깊이 파악하고 있던 **김정일**조직비서는 1970년대에 영화창작가들에게 과업을 주어 그를 원형으로 하는 예술영화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게 하였다. 그때부터 이광의 이름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이름으로 되었다.

이광의 부인 공숙자는 유격대오에서 재봉대원으로 투쟁하다가 희생되었다. 아들의 희생에서 오는 슬픔을 혁명군 원호의 열의로 메꾸던 이광의 아버지 이주평과 누이 이봉주는 적들의 고문에서 생긴 어혈로 이 세상을 떠났다. 이보천이 우리의 곁에 아들을 하나 남기고 전사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아들이 지금 총대를 틀어잡고 할아버지네 세대가 개척한 길, 그 뒤를 이어 아버지네 세대가 넓혀온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다.

그러고보면 이광이네 일가는 3대가 혁명군대에 복무하는 것으로 된다. 한 가문이 3대에 걸쳐 총을 잡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성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광의 손자가 다른 분야로 가지 않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복은 입은 것은 대단히 장한 일이다.

얼굴도 몸가짐도 걸음걸이도 모두 할아버지를 닮은 젊은 군관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내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60년 전에 우리 곁은 떠난 이광이 다시 살아서 나를 찾아온 것만 같아 가슴 뭉클해지는 감회를 금할 수 없었다. 25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이보천의 아내가 장장 40년이 지나도록 그 아들 하나를 믿고 꿋꿋이 키워 이광의 대를 잇고 그의 혁명정신을 잇게 한 것은 만사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이다.

이보천의 아들은 나를 만난 자리에서 자기는 물론, 자기의 아들딸들도 군복을 입고 나와 **김정일**원수를 위해 대를 이어가는 충성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결의하였다. 나는 그 결의가 빈말공부로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광이네 가문은 빈말을 하지 않는 집안이다.

이광이 만일 살아서 광복된 조국으로 돌아왔더라면 무슨 일을 하였을까?

나는 지금도 종종 이런 가설을 세워보곤 한다. 이광의 사회활동은 물론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가 겨울 명월구회의 때 이청산이네 집에서 표명한 이상도 교단에 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해방된 조국에 살아서 개선하였더라면 강건이나 최현이처럼 군복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어려운 초소를 골라가며 일생을 산 헌신적인 공산주의자였다.

(끝)

일화

믿음은 가장 힘있는 교양

1978년 여름 어느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어 어느 한 작가에 대해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로 말하면 재간있는 작가로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좋은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심하고 술을 자주 마시어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군 하였으며 이 시기 어느 한 제강소에 내려가 현지체험을 하면서 혁명화를 하는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일은 잘하는데 자유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술먹는 버릇을 떼지 못하여 노동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일군들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가 어린 나이에 의용군에 입대하여 잘 싸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덧붙여 말씀드리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심중한 안색으로 하나의 문건을 넘겨주시였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법 규범과 질서를 어긴 자료들이 적혀있었습니다.

이윽고 장군님께서는 그가 어린 나이에 혁명을 하겠다고 의용군에 입대하여 잘 싸웠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자료를 이해할 수 없다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날 남조선에서 못살고 천대받던 그에게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안겨주었고 대학공부까지 시켜주었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영예로운 작가대열에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적 열의를 믿고 조선노동당원의 영예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령님과 당의 은덕으로 사람답게 살게 되고 자기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게 된 그가 이 은덕을 고맙게 생각하면 생각했지 무엇때문에 우리 당에 반감을 가지고 나쁜짓을 하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그의 창작생활과정을 놓고보더라도 나쁜짓을 하였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사실을 구체적으로 요해할데 대한 과제를 주시였습니다.

일군들은 장군님의 믿음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 그가 소속되어 생활하고 있는 당세포조직에도 들어가고 그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과도 만나 상세히 요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그들은 제기된 비행자료가 왜곡되고 과장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결함은 역시 자유주의와 술풍이였습니다.

모든 것이 장군님께 그대로 보고되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현지에 내려보내신 후 그 작가가 쓴 작품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작가의 사상정신상태를 파악하셨고 그에 대한 믿음을 깊이 간직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보고하는 일군에게 이러한 사연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언급하시였습니다.

**≪나는 좋은 작품을 쓴 그 작가를 믿습니다. …
그는 우리와 한대오에 서있는 혁명동지입니다. 결함과 과오는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허물처럼 함께 가슴아파하며 고쳐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혁명을 해나가야 할 귀중한 혁명동지란 말입니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경력에 대하여 그리고 당과 국가가 그를 공들여 키워온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범한 과오를 자신의 허물처럼 가슴아파하며 일깨워주고 도와줄 대신에 그를 막다른 골목에 밀어놓으려 한 일부 편협한 사람들의 그릇된 처사를 지탄하시였습니다.

계속하여 그분께서는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다루는 일군들이 동지를 사랑하고 사람을 믿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무서운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혁명동지를 뜨겁게 사랑하고 믿어주면서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은 당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의 숭고한 임무이며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라시며 이렇게 강조하시였습니다.

≪믿음에는 마음이 따르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여 정치적 믿음에는 충성심이 따릅니다. 우리 인민이 바라는 것도 당의 믿음뿐입니다.≫

장군님의 이 크나큰 믿음 속에서 그 작가는 자신의 결함을 깊이 깨닫고 정신수양을 쌓아 민중의 사랑을 받는 이름있는 작가로 자라났습니다.

송시

나는 ≪김정일거리≫를 지나왔다

새천년 2월아침
격앙된 심장의 박동에 떠밀려
나는 거리로 뛰쳐나왔다
몸은 여기 서울도심 세종로에 섰어도
내 마음의 거리는 저 대양건너

사업차로 찾았던 가이아나
코리버튼시에
우리 장군님 존함으로 빛나는
아, ≪**김정일**거리≫!

그 거리에 들어서며
나 얼마나 열광했던가
온 세계가 추앙하는 위인을
민족의 영수로 모셨다는 자긍심에
나는 어깨 으쓱 아이처럼 활개치며
열번도 더 거리를 오갔나니

그 나라 뿐이랴
토고의 ≪**김정일**도서관≫
베닌의 ≪**김정일**장군 만세 친목회≫
스웨덴의 ≪북유럽 **김정일**화협회≫
세상은 온통 **김정일**세상

그날 그때부터 명백히
내 인생주로는 평양행
내 삶의 종착점은 위대한 영수님 품

그때처럼 나 항상
씩씩할거야
용감할거야
희망찰거야

하여 어젯날엔 아프리카의
≪**김정일**거리≫를 지나왔건만
내일은 기필코 통일서울의
≪**김정일**거리≫에 들어설거야

북남공동선언따라 조국통일대행진에 떨쳐 나서자

노동신문 사설 - 주체91, 1월 7일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새 세기 두번째 해의 장엄한 조국통일진군길에 떨쳐 나섰다. 그들모두의 가슴마다에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가 간직되여 있다. 온 민족이 이 전투적구호를 높이 추켜 들고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공세를 과감히 짓부시고 올해를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놓는 뜻 깊은 해로 빛나게 장식하고야 말 굳센 의지로 심장을 불 태우고 있다. 민족자주선언이고 민족대단결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 이룩할 철의 의지가 온 겨레의 가슴속에서 더더욱 끓고 있다.

우리는 온 민족의 이 불 같은 통일열망과 장엄한 통일대진군에서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새해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은 6.15북남공동선언이 오늘도 래일도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라는데 대해 온 세상에 다시금 확언하였다.

조국통일은 민족최대의 념원이다. 민족분렬의 그 기나긴 세월속에서 우리 겨레가 당한 불행과 고통은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그 불행과 고통은 쌓이고 쌓여 이제 더 덧쌓일 여지조차 없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며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 온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민족분렬은 더 없는 민족적수치이다. 조국통일이야말로 민족의 존망과 관련되는 가장 절박하고 사활적인 민족사적위업이기에 전체 조선민족이 그것을 가장 큰 념원으로,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통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온 민족이 바란다고 해서 스스로 이루어 지는것도 아니며 또 누가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조국통일은 오직 7천만 온 겨레가 떨쳐 일어 나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

온 겨레의 의사와 념원대로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면 그 실현원칙과 목표, 수행방도가 밝혀 져야 한다. 말하자면 조국통일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이 있어야 하고 통일의 목표가 뚜렷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한 방도가 명백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 다른 제도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 나설수 있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은 바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목표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뚜렷이 담고 있는것으로 하여 명실공히 조국통일의 리정표로 된다.

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북남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 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위업은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주체의 힘과 노력으로 이룩해야 할 철두철미 우리 민족자신의 위업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자주성을 지켜야 민족의 존엄과 권리, 리익을 지킬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수 있다. 그 어느 민족이든 자주성을 잃게 되면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 날수 없고 나중에는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게 된다.

조국통일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인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민족은 언제까지도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미제를 비롯한 침략적인 외세는 절대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직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 놓고 우리 민족을 희생시켜 저들의 리익만을 추구할 야망밖에 없다. 반세기가 넘는 민족분렬의 력사를 통해 우리 겨레는 이것을 똑똑히 체험하였다.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주의사상이 가져 오는 후과 또한 엄중하다. 지난날 남조선에서 감행된 사대와 외세의존책동은 외세의 침략성과 전횡만을 더 크게 했으며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의 앞길을 걸음마다 방해하였다. 오늘의 현실도 그렇다. 지금 남조선의 반통일분자들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와 공조하여 반통일의 길로 나가고 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우리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며 북남공동선언정신을 부정하고 새 전쟁을 도발하는것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을 말살해 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 있다. 그로인해 좋게 발전해 오던 북남관계는 삽시에 랭각상태에 처하고 정세는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지키는 문제는 이처럼 심각하고 중요하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고수하면 통일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분렬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 질수 있어도 추호의 변화도 없어야 하는것이 바로 민족자주의 원칙이다. 북남공동선언이 민족자주의 원칙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 지든 북남공동선언에 구현된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벌려 나가야 할것이다.

북남공동선언은 자주통일의 목표와 그 실현방도를 뚜렷이 밝혀 주고 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면 근본원칙과 함께 옳은 목표와 현실적인 방도를 택하여야 한다.

아무리 조직화된 투쟁이라 하더라도 행동목표가 뚜렷하지 못하고 활동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그러한 투쟁은 실패와 좌절을 면할수 없다.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성과의 여부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고 겨레의 지향과 의사에 부합되며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통일목표와 방도를 택하는가 못택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북남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가장 빠르고 공정하게 그리고 순조롭게 해결해 나갈수 있는 목표와 실현방도를 뚜렷이 밝히고 있다. 6.15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것은 북과 남이 분렬이래 처음으로 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한것으로 되며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의 력사적인 전진이다.

북과 남에는 엄연히 서로 다른 두개의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그 어느 일방도 자기의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비현실적이며 언제 실현되겠는지 예측할수도 없다. 제도를 단일화하려는것은 그 실현방도가 어떠하든지 상대방을 먹는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것만큼 그것은 어느 쪽에도 접수될수 없는것이다. 접수될수 없는것을 강요하려 한다면 불피코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게 되고 나아가서는 충돌과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까지 빚어 낼수 있다. 그 방법이 어떠하든 상대방을 먹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은 력사가 실증해 주고 있다.

우리 민족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가장 순조롭게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길은 련방제방식에 의한 통일밖에 없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실현할데 대한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이다.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북과 남이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현할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대원칙을 구현하는데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북과 남의 리해관계가 공정하게 반영되여 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적인 지위에 놓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 리익을 침해 당함이 없이 공정하게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의 련방제 통일방안은 이러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련방국가형성의 원칙과 방도, 통일정부와 지역정부의 임무 및 호상관계, 련방국가의 기능과 성격, 련방국가의 국호에 이르기까지 통일국가의 창립과 그 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있다. 련방제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하면 북과 남은 서로 자기의 리익을 침해 당함이 없이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적숙망을 실현하게 될것이며 통일민족의 슬기롭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세계에 보여 주게 될것이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반영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도를 밝힌 여기에 6.15북남공동선언이 새 세기 민족자주통일의 리정표로 되는 근거의 다른 하나가 있다.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위업은 민족대단결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북과 남의 화합과 대단결을 떠난 통일이란 사실상 무의미하다. 민족의 대단결에 조국통일이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 대단결보다 더 위력한 무기는 없다. 조국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 조선민족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그리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할것 없이 모두가 단결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말로써가 아니라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행정에서 뜻과 힘을 합쳐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는 과정에 이루어 지고 공고화되게 된다. 우리 민족내부에 비록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해도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래왕, 접촉하며 대화를 하고 련대련합을 강화해 나간다면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합칠수 있다.

지난 년간들에 진행된 8. 15통일대축전들은 온 겨레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떨쳐 나서기만 한다면 조국통일운동에서 얼마든지 뜻과 힘을 합칠수 있고 전 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할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국통일위업의 성패는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어떻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계급적차이,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뛰여 넘어 오직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북남공동선언은 북과 남사이에 인도적문제들을 풀어 나가며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참으로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민족, 온 세계앞에 공포한 6.15북남공동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하여 온 겨레가 들고 나가야 할 민족자주통일의 기치, 자주통일의 리정표이다. 그것이 있어 우리 겨레의 민족자주통일운동은 더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북남공동선언의 생활력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실천투쟁에서 남김없이 발휘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기 위한 겨레의 애국애족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 진 우리 민족이 하나로 재결합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이 조국통일의 앞길에 더욱더 큰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고 있지만 조국통일의 흐름은 절대로 막지 못한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이 땅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 나가야 할것이다.

(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12회
학사 김창호선생 - 주체91, 5월 8일

뜨거운 인간애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지 **김정일**동지께서 어려서부터 뜨거운 인간애를 천품으로 지니고 계셨다는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일**동지는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강하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인간을 먼저보고 인민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천품이기도 합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은 언제나 인간을 먼저 보고 인민을 사랑하는 것을 천품으로 지니신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화신이십니다. 인민의 참된 지도자는 인민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보살펴 주는 마음, 다시 말해서 인덕이 있어야 합니다. 인덕이 있어야 위인의 품격도 올라갑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재능이 있다고 해도 인덕이 없으면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은 어리신 시절부터 인간사랑을 천품으로 지니고 계신 인덕의 최고 화신, 인민의 참된 지도자이십니다.

어린시절의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리신 시절에 천품으로 지니신 뜨거운 인간애는 어떻게 발현되였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리신 시절에 지니셨던 뜨거운 인간애는 우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도 도와주곤 하신데서 발현되였습니다.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뜨거운 인간애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리셨을 때부터 남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시였고 특히 남의 아픔과 불행을 자신의 아픔과 불행으로 여기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실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유치원에 다니실 때 있은 일입니다. 그때 유치원에서는 뜻깊은 운동회를 조직했습니다. 운동회에서는 유치원 어린이들의 여러가지 오락경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자전거경기가 이채를 띄였습니다. 어리신 그이께서도 자전거경기에 참가하셨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신호소리가 나자 자전거들이 일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이께서는 처음부터 맨 앞장에서 달리셨습니다. 결승선을 가까이 하고 뒤를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자전거를 멈추시고 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되돌아 서시여 오던 길로 뛰어가셨습니다. 그 자리 한 어린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이께서는 그 어린이에게로 가시여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벗어진 신발도 찾아 신겨 주시고 자전거에까지 태워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뒤따르던 어린이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기도중이라는 것을 잊으신 듯 싶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크나큰 감동에 쌓여있었고 응원을 하느라고 술렁거리던 운동장은 조용해 졌습니다. 어느덧 그이께서는 다시 자전거를 타시고 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이 앞으로는 두 어린이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힘껏 달리셨지만 한 어린이만을 따라 앞서시고 결국 2등을 하셨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어리신 그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1등을 하지 못하신 서운한 감도 없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동무를 도와 준 것으로 해서 어리신 그이의 마음은 더 기쁘셨습니다. 관람석에서 어리신 아느님의 경기과정을 보시던 어머님이신 **김정숙**동지께서도 아드님께 넘어진 동무를 일으켜주었으니 1등한 것보다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장한 일을 했다고 치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실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섯 살 되시던 해인 주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은 어리신 시절부터 인간사랑을 천품으로 지니고 계신 인덕의 최고 화신, 인민의 참된 지도자이십니다.

체36(1947)년 4월 어느날에 있은 이야기입니다. 어리신 그이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평양제사공장을 찾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사공장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공장입니다. 지금의 제사공장들에서는 현대적인 기계로 쉽게 실을 뽑고 있지만 당시 갓 광복된 우리 나라 제사공장들에서는 제사공들이 더운물에 손을 담그고 수공업적으로 실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공들의 손은 부풀다 못해 터지고 갈라져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사공들이 일하는 작업모습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으로 괴롭고 아프셨습니다. 그날 댁에 돌아오신 그이께서는 약함을 여시고 손이 아픈데 바르는 약들을 모두 꺼내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댁에 있는 약도 성 차지 않으셔서 이웃에 사는 항일투사 집에까지 가시여 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 그이께서는 어머님에게 이 약들을 제사공 누나들에게 보내주자고 하시면서 이 약들을 바르면 손이 아픈 것이 인차 나을 것이라고 자신께서 손이 텃을 때 어머니가 이런 약을 발라주니까 인차 나았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신 아드님의 말씀에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앞으로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지 않고도 비단실을 뽑을 수 있는 좋은 기계를 만들어 주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이의 어린 시절에 있는 단편적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이께서는 만경대 혁명학원 원아들속에 앓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자신의 생신날에 드시라고 만경대 증조할머님께서 정성들여 만들어 보내주신 녹두지짐도 그대로 보내주셨고 한 어린이를 벌떼 속에서 구원하고 벌에 쏘인 자리에 약도 발라주시며 그가 아픔을 잊도록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주신 사실을 비롯해서 그런 실례를 다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장군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주체73(1984)년에 남조선에서 수재가 나서 많은 인민들이 토하로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던 그때 수재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 하시며 흰쌀 5만석과 50만미터의 천, 10만톤의 시멘트, 많은 양의 의료품을 비롯한 막대한 양의 구호물자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리셨을 때부터 지니신 뜨거운 인간애는 또한 동무들간의 내것 네것이 따로 없이 나누어 쓰곤 하신데서도 발현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어리셨을 때부터 남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셨고 무슨 물건이건 동무들 간에 내것 네것이 따로 없이 서로 나누어 쓰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어리셨을 때부터 자전거타기를 매우 즐겨하셨는데 동네 아이들이 오면 그들이 차례로 타보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또한, 자신께서 가지고 계시는 물건도 다른 어린이들이 부러워하면 서슴없이 주곤 하셨습니다. 한번은 한 항일투사가 어리신 그이께서 가지고 노시라고 놀이감 따발총을 사다 드렸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따발총을 무척 가지고 놀고 싶으셨던지라 기뻐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그 따발총을 가지고 군사놀이 신나게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가지고 노시던 따발총을 다른 어린이에게 주고 빈손으로 댁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놀라우시여 그이께 따발총을 어떻게 했는가고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동무들에게 주었다고 태연하게 대답하시면서 동무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모두 함께 가지고 놀라고 주었다고, 자신께서 혼자 가지고 노는 것보다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치원 연령기라면 무엇이곤 제가 독차지하고 싶어하고 귀한 물건이 생기면 자랑하기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 심리입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리신 그 때부터 동무들과 나누어 쓰기를 좋아하시고 아무리 귀한 물건이 생겨도 동무부터 생각하시는 너그러우시고 호방한 성품을 지니고 계셨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리셨을 때부터 지니신 뜨거운 인간애는 또한, 검박하고 소박하며 겸손한 품성을 지니고 계신데서도 발현되였습니다. 예로부터 검박하고 소박하며 겸손한 품성은 인간의 높은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기나 위인전 같은 것을 보면 어릴적부터 지혜가 있었다든지 기억력이 비상했다든지 담이 컸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소박하다든가 겸손하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품성이 일정한 연령이나 사회적 경험을 거치고서야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품성은 많은 경우 성인들에게 한해서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는 어리실 때부터 검박하고 소박하며 겸손한 품성을 아울러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이의 이러한 품성을 보여주는 실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이께서는 신발도 유다른 것이 아닌 동무들과 꼭 같은 운동화를 신으셨고 밥곽 하나를 싸셔도 동무들과 꼭 같은 밥곽을 싸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기운 양말을 새 양말로 바꾸어 신으시라고 말씀드릴 때에도 다른 아이들이 모두 새 양말을 신을 때 자신께서도 신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리셨을 때부터 지니셨던 검박하고 소박하며 겸손하신 품성은 오늘 그이께서 우리 민족은 물론 온 세상 사람들이 민족의 태양, 21세기의 태양으로 칭송 받으시는 위인이시건만 전투복이나 다름없는 잠바나 수수한 닫힌 깃옷을 입고 사업하시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그이의 고매한 인간적 풍모에 깊이 감동된 프랑스의 한 사회활동가는 경애하는 **김정일**각하는 인간사랑의 최고 화신이시며 그이의 품은 세계가 안겨주는 위대한 사랑의 품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그대로 진보적 인류의 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리셨을 때부터 지니고 계신 천품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이께서 어리신 시절에 지니셨던 성품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료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목은 ≪12가지 사항≫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학생운동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자

오늘 학생운동앞에는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 무겁고도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북침전쟁책동으로 인해 6.15공동선언이 하늘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오늘의 정세는 거족적인 반미반전투쟁에서 청년학생들이 선봉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절박한 요청에 부응해서 학생운동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의무를 다하자면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학생운동은 어느 한두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백만학도가 함께 하는 대중운동입니다. 대중운동으로써의 학생운동이 자기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운동을 대중화해야 합니다. 대중화를 떠난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학생운동의 기본과제인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은 어렵고 복잡한 위업으로써 한두사람의 힘으로는 수행할 수 없고 오직 광범위한 대중이 참가해야만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운동의 대중화는 학생운동의 현 실태를 봐도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학생운동은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힘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운동발전을 위한 자기성찰의 견지에서 학생운동을 직시해보면 투쟁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지역적이며 소규모적으로 진행되는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있은 부시방한반대투쟁과 지금 벌이고 있는 ≪무기강매반대≫, ≪미군기지이전반대≫, ≪반이회창투쟁≫만 봐도 산발적이고 지역적, 소규모적인 현상들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권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현상으로해서 학생운동은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운동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선 학생운동 핵심성원들이 학생들에게 학생운동의 정당성과 투쟁의 목적과 의의를 잘 알려주어 그들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결심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목적의식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적극 벌이지 못한데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속에서 아직도 운동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와 관련된 거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대중의 지향과 요구, 그 준비정도에 걸맞게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의 하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총학생회들의 경우 등록금인상반대, 교육재정확보, 재단비리척결과 같은 학생들의 생활상 요구와 직결된 문제해결에만 집착하고 사회정치적인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또는 이와는 반대로 사회정치적 문제들만을 중요시하고 학내문제해결을 소홀히 하는 현상들을 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대의 요구와 학생대중의 사상과 준비정도에 맞게 구호를 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대중이 공감할 수 없는 투쟁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그 원인의 하나로 된다고 해야 할겁니다.

학생운동조직들과 운동핵심들은 이같은 문제들에서 교훈을 찾고 하루빨리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힘써야 할겁니다.

학생운동을 대중화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우선 정세변화발전에 맞게 대중의식화작업을 꾸준히 심화시켜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의식화작업을 신세대들의 의식수준과 감정, 정세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자면 학생운동핵심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와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운동의 당위성 등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알기 쉽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대자보게시≫, ≪동아리활동≫, ≪노래패활동≫, ≪인터넷홈페이지공유하기≫ 등은 의식화작업의 좋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호를 잘 들고 투쟁형식과 방법을 올바로 정하는 것은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호는 투쟁의 목적과 과제, 향방을 명시해주는 생동한 기치이며 대중을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기치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운동핵심들은 현시대의 절박한 요청인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의 구호를 전면에 들고 나가야 합니다. 당면해서 6.15공동선언이행과 반미반전투쟁의 구호를 들고나가면서 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반영된 투쟁구호들을 적절히 배합시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학생대중과 각계 민중의 감정과 정세에 맞게 투쟁방법을 잘 구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다양한 투쟁방법과 전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이 명실공히 대중이 공감하고 동참해 나서는 대중운동으로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학생운동의 대중화는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전국조직이 있고 투쟁목표가 명백한 이상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지 못할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백만 청년학생들은 한총련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임으로써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책무를 다해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학생운동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학생운동이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실현의 선봉에 서자면 자기 조직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운동핵심들이 학생대중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청년학생들이 항상 배우는 학생으로써의 위치를 잊지 않으면서 민중들속으로 깊숙히 파고들어 자신들의 운명을 이 땅의 민중들의 삶과 일치시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지역과 현장에서 첫걸음부터 시작하는 모습, 끊임없이 민중속으로 들어가 민중들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선배들의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8일

반북반통일적인 망발을 떠들어대는 한나라당

이미 보도된 것처럼 한나라당은 7일 대변인을 내세워 제2차 경협회담이 제 날짜에 개최되지 못하게 된 것이 북의 체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느니 퍼주기를 강요하는 벼랑끝 협상전술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것은 반동광신집단인 한나라당만이 할 수 있는 반북반통일적인 궤변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성홍이 미국에 찾아가 4.5공동보도문이 발표된 것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성과라는 망언을 늘어놓은 것은 결국 6.15공동선언이행을 결렬시킨 미국의 대북강경책동과 부시의 ≪악의 축≫망발을 정당화하고 인정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대북강경책동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원상회복을 위해 성의를 다해온 이북에 대한 모독으로써 공동보도문을 뒤엎고 남북대화와 협력사업에 훼방을 놓는 엄중한 도발로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북은 4.5공동보도문이행과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남북관계를 순조롭게 발전시켜나가려는 주장으로부터 남측의 최성홍의 불순한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그에 대한 책임적이고도 납득할 수 있는 조치부터 취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남측이 납득할만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경협회담을 제 날짜에 개최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이 명백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2차 경협회담이 제 날짜에 열리지 못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불성실한 태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그 책임을 이북에 전가하며 당치 않은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반북사상이 골수에까지 들어찬 반통일집단의 도전적인 망동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떠든 퍼주기요 뭐요하는 것도 언어도단입니다. 6.15공동선언에 따라 동족사이에 이루어지는 교류협력문제를 퍼주기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달가와하지 않는 자들의 고약한 심보라 하겠습니다.

퍼주기로 말하면 이북이 남에 대고 해야 할 소리입니다. 이북은 84년 수재때 엄청난 양의 물자를 이남에 무상지원한 것을 비롯해 여러 계기때마다 동포애의 정으로 아낌없는 성의를 다해왔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퍼주고 있는 것은 이북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주한미군유지와 무력증강 등의 명목으로 미국에 섬겨 바쳐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동족간에 이루어지는 교류협력문제를 놓고 퍼주기로 모독하면서 악담을 늘어놓고 있으니 이야말로 반북대결에 미쳐나고 친미사대매국에 환장이 된 한나라당패거리들만이 일삼을 수 있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망동이라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망동이 남북사이의 불신을 조성시켜 남북대화와 협력을 파탄시키고 나아가서 6.15공동선언이행을 통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아보려는데 그 저의가 있음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산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로 나가는 대세의 흐름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저들의 무분별한 반북반통일적인 망동이 초래할 파국적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별있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8일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국주의미국은 세기를 이어 우리 겨레에게 치욕의 역사를 강요하고 야만적인 살인과 약탈과 온갖 재난과 고통, 불행을 덮씌우고 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와서도 지난날 이 땅에서 감행한 미국침략군의 치떨리는 범죄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알려져 우리 민중과 세계 양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어요.

미군침략군의 총칼에 쓰러진 수천수만의 시체가 묻혀 있는 제주도와 거제도, 영동과 단양 그리고 이남 여성들의 원한이 하늘에 닿고 있는 파주와 양주, 평택 등 이남땅은 천인공노할 미국침략자들의 야수같은 만행을 온 세상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야만적이고 집단적인 학살행위가 그칠새 없었고 우리 민중의 피가 서리지 않은 날이란 없었죠. 미국침략자들이 이 땅에서 감행한 인간도살행위는 근대제국주의의 침략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포악하고 잔인한 겁니다. 미군의 이남땅 강점사는 야만적인 살육과 약탈로 얼룩진 피비린내나는 역사이며 민족적 멸시와 인권교살로 엮어진 범죄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남 땅을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라는 결코 둘로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미국이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조국통일을 실현했을 겁니다. 미군의 이남강점으로 인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분열의 비극을 강요당하게 되었죠.

우리는 외래침략군대가 강점하고있는 이 땅에서 우리 민중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미군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이래 이 땅이 어떻게 전변되었습니까. 강점자들의 칼부림과 전횡, 살육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는 재난의 땅으로,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모든 것이 짓밟히고 질식당하는 생지옥으로 화했습니다.

1948년 제주도항쟁시 미국은 제주도까지 필요한 것이지 제주도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주도민을 다 죽이더라도 제주도는 확보해야한다고 하면서 강점군을 내몰아 섬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여명의 애국민중들을 학살했습니다.

미군이 지난 6.25전쟁시기 이남지역에서 학살한 주민의 수는 개전이후 1년기간에만도 무려 100만명이상에 달했습니다. 미제침략군은 이 땅에서 아메리카원주민들을 멸족시키는 그 잔인성과 야만성을 그대로 재현시켜 길가는 사람들을 깔아죽이고 부녀자들을 능욕하고 목졸라 죽이는 등 온갖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바로 그 야수들이 1980년 5월에는 무쇠주먹으로 진압하라는 명령으로 군사깡패들을 살인작전에 내몰아 광주시를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남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강점이 계속되는 한 우리 민중은 불행과 고통,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이남강점역사가 그것을 웅변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이 땅에서는 도처에서 각계 민중의 격렬한 반미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성조기가찢겨지고 부시허수아비가 불타고 있으며 미국 기관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남에서 높아가고 있는 반미의식과 반미투쟁은 미제의 이남강점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려는 각계 우리 민중의 굳센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미국은 이 땅에 남아있을 그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군축과 **이 시대적 추세로 되고 있고 우리 이남 민중이 그 어떤 외세의 지배와 간섭도 용서치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남 땅에 침략군과 무력을 그대로 남겨둘 구실이란 없는 겁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들속에서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때에 미군이 이남 땅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대결과 전쟁, 분열책동을 일삼는 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미제의 이남 땅 강점은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미국은 이 땅에서 하루속히 자기의 침략군대를 철수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침략과 간섭의 손을 떼야합니다. 만약 미국이 시대의 흐름과 전체 우리 민족의 요구를 외면하고 이남 땅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전쟁책동을 계속 감행하는데로 나간다면 침략자, 호전광으로써 더 큰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7천만 온 겨레는 반외세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단결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8일

통일연대 건설과 활동으로 의연히 집중해나갈 것을 힘있게 제의하며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운동기간

통일연대는 5월부터 8월까지를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선포식을 지난 5월 5일 종묘공원에서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아직 통일운동 진영내에서도 이 기간의 상에 대한 힘있는 공유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초 북의 제 정당사회단체 합동회의에서 3대 제의 3대 호소가 발표된 직후 이것을 남쪽에서도 이것에 공식적으로 화답하는 어떤 제안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은 비교적 폭넓게 확산되어있었다.

또 부분적으로 이 제의에 열렬히 호응한다는 취지의 입장표명이나 성명 등은 있었으나 이 기간에 맞추어 실제적인 현실의 흐름을 어떻게 형성해야 할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북의 이 제안에 대하여 남쪽의 입장을 자신 있게 정리해내고 있지는 못하였다.

6.15민족공동행사를 위한 남북단체들의 실무회담에서 겨우 합의된 ≪6.15공동선언일≫을 ≪민족통일대축전≫으로 한다는 합의에 따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는 준비에 이제 겨우 돌입한 상황이다.

기왕에 6.15민족통일대축전을 준비하여온 청년학생들이 예년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한총련 출범을 서둘러 진행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예년보다 2달이나 앞당겨 진행되는 민족통일대축전이니 만치 마음들은 대단히 바쁘지만 남쪽내에 10년 이상 8.15를 민족통일대축전으로 맞추어 진행되어온 일정들과 정서들이 존재하다보니 수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5월 5일 선포식을 준비하며 여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 기간동안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남쪽 내에서 6.15공동선언을 그 민족사적 의의에 맞게 그 의의를 공유하고 그것을 기리는 의식을 확산시켜내는 사업. 둘째, 6.15공동선언을 저지 파탄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사하려는 미국의 내정간섭과 전쟁책동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높여나가고 저지전선을 폭넓게 형성하는 사업, 셋째로 수구반통일세력, 동요하는 김대중 정부의 그 어떤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제반 법적 제도적 이념적 장치를 제거하고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그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넷째로 6.15민족통일대축전의 금강산 공동행사와 청년학생 통일행사 여성통일행사, 8.15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켜 내는 사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은 이미 통일연대 내에서는 확고하게 공유되어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들을 모두 진행시키는 사업에 있어 나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화의 문제와 폭넓은 연대연합을 이루어내는 과제가 현실에서 부딪친다는 점이다. 6.15 금강산 민족통일대축전에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적으로 참가하는 문제는 현실의 법 테두리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앞으로 지금 구성을 앞두고 한참 논의가 진행중인 2002민족공동행사 남측본부내에서의 종단 민화협 통일연대의 이 부분에 대한 일치가 높으면 상황은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종단과 민화협은 정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지 않으려는데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는바 이점에 대한 드높은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은 쉽지 않다.

통일연대의 각 단위 역시 상황은 다르지만 여전히 나서는 어려움은 있다. 즉 범민련 한총련 합법화 문제에 전 투쟁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전체의 역량은 2003년을 앞두고 예상되는 북미간의 대 격돌에서 한반도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 미국반대 전쟁반대의 폭넓은 흐름을 범국민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투쟁과제를 더욱 절실하게 보고 있으며 또한 지금으로서는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지자제 선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화 역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민족대단결의 실현을 자기 목표로 하는 통일운동에서 이것을 가로막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앞으로 통일연대는 얼마 남지 않은 6.15민족통일대축전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한 좀더 슬기롭고 정확한 자기 입장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 작년에 통일연대의 화두가 추진본부에 가입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둘러싸고 진행된 어려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훨씬 더 진취적인 화두를 둘러싸고 많은 토론이 진행될 것 같다.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아마 통일연대는 이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낙관해본다. 자주통일대오는 확고하게 진전하고 있으며 우리의 단결의 정도, 판단의 정도도 훨씬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믿음을 스스로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통일연대가 5월부터 8월까지의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운동기간≫에 진행하려는 범국민적인 군중사업을 몇가지 소개한다.

첫째는 6.15공동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흐름을 형성하는 사업이다.

둘째로 615 민족통일 대축전 때에 제기하여 8.15때 발표할 전국 어린이 청소년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전국 통일글짓기 상 공모전≫ 사업이다.

세번째로 각 부문과 지역의 통일에 동의하는 모든 일군과 대중들이 한데 힘을 합쳐야만 성사시킬 수 있는 전국 통일 역전 이어달리기 마라톤 행사이다.

이상에서 올해 통일운동의 폭넓은 대중화를 위하여 통일연대가 제기하고 있는 몇가지 역점사업을 정리하여 보았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반전평화범국민선언운동≫이라는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점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이다.

초기에 미국반대 전쟁반대를 위한 범국민 불매운동이라는 방식으로 제기하였으나 통일연대내에 몇 단체들의 이견으로 애초 통일연대가 하려고 했던 일상적인 군중사업의 내용을 같은 기조를 담되 불매운동이 아닌 선언운동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선언운동이 불매운동과 대립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지금 통일연대는 이 선언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www.koreaisone.org≫라는 홈페이지를 대중적인 포탈 반미사이트로 준비하고 있으며 한청을 중심으로 매주 광장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미반전운동의 흐름은 6월 22일은 ≪반전평화국제대회≫와 ≪반전평화 국제행동의 날≫ 조직사업을 통일연대가 힘있게 펼쳐감으로써 상반기 통일운동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에도 대대적인 국민적 흐름을 조성하게 될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대단결의 지형을 넓히기 위한 주적론 철회 등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기획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청년학생 통일행사, 여성 행사의 성사를 위해서도 통일연대는 모든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이런 흐름들속에서 올해 8월에도 성대한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이다.

이밖에도 7.4 30주년 기념식, 7,27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화하기 위한 범국민문화제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통일대행진단 활동, 단일기 달기 운동 등이 내정되어있고 일상적인 반미집회와 범민련 한총련 합법화 투쟁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통일연대는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하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다변화 통큰 기획사업을 새롭게 창조하고 일구어나가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있다.

이런 다양하고 통큰 기획사업을 개발하지 못하고 집회중심의 활동에 머무른다면 아마 6.15공동선언을 위한 범국민적인 흐름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계속 난관에 부딪칠 것이 틀림없다.

올해 1월말 통일연대와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 공동주최로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던 것은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세에 요구되는 사업은 이보다 훨씬 더 규모 있고 대중적인 사업이여야 한다는 것도 또한 분명한 역사적 요구이다.

지역간 자주교류 연계사업, 금강산 살리기 지원사업, 우리민족끼리 힘합치기 사업, 6.15정세에 맞는 통일문화교육 사업 등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는 이미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상반기 통일운동의 성공적 진행 속에서 하반기 계속 이어나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정세가 어려워지고 남북관계는 이로 인한 우여곡절을 겪는다 해도 통일연대가 해야할 남쪽 통일운동의 연대체로서 의연히 가야할 과제는 참으로 많다. 모든 통일일군들은 각자의 창조적 열정과 고민을 통일연대 건설과 활동으로 의연히 집중해나갈 것을 힘있게 제의하며 글을 맺는다.

김이경 통일연대사무처장
통일연대 2002/05/08

민주노동당 울산 압승! 서울 돌풍! 예상

5월 9일 지방선거 출마자 1차 179명 확정

이문옥 서울시장 후보

김준기 경기도지사 후보

민주노동당은 5월 9일 오는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179명을 1차로 확정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이문옥 서울시장후보, 김석준 부산시장 후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비롯하여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광주시장, 경남도지사 후보 등 7명이고, 기초단체장은 이재구 창원시장 후보 등 13명, 광역의원은 비례대표 포함하여 조규선 서울시 후보 등 63명, 기초의원은 양용모 전주시 덕진구 의원 후보 등 96명이다.

9일 1차로 확정된 후보들에 이어 5월 28일 지방선거 돌입 전까지 추가로 후보들이 선출되면 전체 후보 수는 2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9일 확정된 민주노동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은 모두가 지구당의 당원총회에서 직접 선출되었거나 울산처럼 안전 개방형 예비경선을 통해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소신과 철학이 뚜렷한 사람들이다.

특히 울산광역시장 후보의 경우는 45,000명이 넘는 지역 유권자가 예비경선에 참가해서 두 사람의 예비후보 가운데 송철호 후보를 박빙의 차이로 선출하였는데, 현재 지역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등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전체 울산지역 선거를 석권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또 ≪반부패 특별시장≫이라는 캐치프레이저를 내걸고 늦게 출사표를 던진 이문옥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벌써부터 www.moonok.com이라는 팬클럽 사이트에 하루에 1만명 이상이 접속할 정도로 네티즌을 중심으로 지지열기가 뜨겁고 이 후보와 김민석 민주당 후보를 비교하여 ≪옥석(玉石)구분≫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돌풍이 불고 있다.

민주노동당 2002/05/09

공식 사과 없으면 대선 때까지 1인 시위

≪노사모 발언≫ 관련 이회창은 사과하라

지난 7일 박원홍 한나라당 의원의 ≪노사모를 사이비종교에 빗대고, 정치 룸펜이라고 폄하한 발언≫에 대해 노사모 회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8일 낮 명계남 회장의 1인 시위에 이어 이날 밤에는 100여 명의 회원들이 결집해 밤샘 시위를 벌이는 등 분노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노사모는 ≪9일 저녁 6시까지 박 의원의 공식 사과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선 때까지 전국적인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8일 밤 10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평소에는 사람의 왕래가 드문 시간이지만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로 시끌벅적하다. 이날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노사모 회원들이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노사모 회원 100여 명이 지역별로 모여 박원홍 한나라당 의원의 ≪노사모 발언≫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노사모 회원들은 오후 4시께부터 한나라당사 앞에 모여들기 시작해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1인 시위장 주변을 촛불로 밝히며 본격적인 밤샘 농성을 시작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노사모 회원들은 계속해서 여의도 앞으로 집결했다. 마치 집안에 무슨 큰 일이 난 것처럼 헐레벌떡 뛰어와 다른 회원들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분통을 터트리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밤참을 준비하기 위해 안전모를 들고 다니면서 성금(5000원 이하)을 모금하는 회원도 있었고, ≪한나라당이 초상 나서 문상 왔다≫고 농담하는 회원도 있었다. 노사모 회원들은 한나라당사 앞과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60여 명이 밤을 세웠다. 이날 밤 고양 · 인천 · 광양 등에서 뒤늦게 달려온 회원들도 있을 정도로 노사모 회원들의 분노는 거셌다.

9일 오전 10시 현재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10여 명의 회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노사모 회원들은 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박원홍 의원 지구당 사무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한나라당은 노사모의 1인 시위에 대해 일체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당 홍보위원장인 사람이 뭐 하러 그런 얘기를 해서 화를 자초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노사모의 집회는 불법≫이라며 ≪경찰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노사모의 정체를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노사모≫ 1인 시위, 지역으로 확산

대구, 부산 등 지역에서도 노사모 회원들이 중심이 돼 1인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9일 오전 11시부터 노사모 대구지역 회원 20여 명은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앞에서 번갈아 가며 1인 항의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 참가자들은 ≪박원홍 망언 규탄한다≫ ≪노사모에 사죄하라≫ 는 문구가 적힌 광고판을 앞뒤로 쓴 채 시지부 앞 노상에서 시위를 했다.

시위 참가자인 정대일씨는 ≪노사모 회원이라면 당연히 항의시위를 해야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를 정치모리배로 몰아부치는 데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노사모 회원들도 1인 시위자 주변에서 ≪정치발전 저해하는 한나라당 박원홍 위원장의 망언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돌리기도 했다. 이 유인물에서 노사모 회원들은 ≪박위원장이 한나라당, 노사모 홈페이지와 ≪오마이뉴스≫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한나라당은 노사모 관련 망언이 당 공식입장인지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노사모 회원인 김의현씨는 ≪노사모 중앙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의시위에 맞춰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항의시위를 벌일 것≫이라면서 ≪박 위원장의 구체적인 해명과 사과가 없을 시에는 철야농성 등 적극적인 항의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 회원들은 일단 이날 오후 6시까지 1인 시위를 벌이다 돌아갔다.

한편, 서울과 대구 이외에도 부산, 목포 등지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노사모 회원들의 시위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 2002/05/09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5)

서론

논제 1 -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논제 2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 논제 3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혁명운동과통일운동의주도역량과방조역량
조선노동당과전위조직
선군혁명과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논제 4 -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논제 5 -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수정

논제 6 - 민족해방혁명의 관점에서 고찰한 미군철거의 의의

논제 7 - 선군혁명전략의 당면목표와 6.15공동선언의 지향

논제 8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지위와 임무

논제 9 -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논제 10 -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결론

논제 3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

조선혁명의 수령이시며 조선노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 44(1955)년 4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4월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정권과 사회단체들을 더욱 강화하며 남북반부인민들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 역량을 우리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시켜 그들을 미제와 리승만도당을 반대하는 전민족적 혁명투쟁에로 궐기시켜야 하며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비단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보위할 강력한 역량으로 되게 할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통일독립을 쟁취할 결정적 역량으로 전변시켜야 할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1국1당제의 원칙≫과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와 국내당공작위원회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국제당은 제6차대회에서 채택한 규약의 총칙에서도 국제공산당에 소속되는 개개의 당은 해당 나라의 공산당이라는 명칭을 가지며 매개 나라에서는 하나의 공산당만이 국제당의 지부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1국1당제의 원칙을 규정하였다.≫(제2권, ≪첫 당조직 - 건설동지사≫)

≪우리는 그때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소집하고 나를 책임자로 하고 김평과 박달을 위원으로 하는 국내당공작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박달은 이 위원회의 현지집행인으로서 갑산지방을 비롯한 국내 여러 지역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을 주관할 임무를 지니었다.≫(제5권, ≪국내당공작위원회≫)

통일혁명당은 1979년 8월 25일 창당 10주년을 맞이하여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천명의의 담화문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은 필승불패이다≫를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따라서 창당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엄숙한 시각에 우리 통일혁명당의 지도중핵과 당원들의 불타는 심정은 일찌기 혁명의 새벽길을 개척했으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인류사에 주체의 신기원을 열었으며, 오늘날 위대한 주체의 조국을 세계 만방에 찬연히 빛내며, 백전백승하는 **김일성**주의의 밝은 빛으로 한국민중의 앞날을 밝히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과 영원한 충성의 열정으로 넘치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올해 신년축하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조종의 성산 백두산에서 솟아오른 장쾌한 해돋이가 제주도 끝까지 온 3천리를 밝히며 불러오는 희망찬 새해의 이 아침,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민족의 운명이시며 자주시대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체사상의 사상, 이론, 방법을 집대성하고 있는 주체사상 총서 제4권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서 노동계급의 당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체의 혁명이론은 주체적 혁명역량편성에서 가장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노동계급의 당을 튼튼히 꾸리는 것이라고 밝혀준다. ≪노동계급의 당이 있어야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결속하여 혁명투쟁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 수 있으며 옳은 전략전술을 가지고 인민대중을 승리로 인도할 수 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집≫,1권, p.177). 노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의 개척자이며 영도자인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이다.≫(노동계급의 당의 강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혁명이론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발표된 ≪열 가지 논제≫는 여러 항목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관계와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제혁명역량을 조선노동당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전위조직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물론 신식민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전위조직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제혁명역량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반제혁명역량이라는 점에서, 조선노동당의 혁명역량과 전위조직의 혁명역량은 그 성격과 임무가 하나로 일치합니다. 전위조직과 조선노동당은 모두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최고영도자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고 혁명전략을 수행하는 혁명적 정치조직입니다. 전위조직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영도체계에 결합된 혁명조직입니다. 당적 체계를 갖춘 전위조직을 전위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전위당도 역시 조선노동당의 혁명영도체계에 결합된 혁명적 당으로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3.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여기서 전위조직 건설의 과업,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관계, 전위조직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관계, 전위조직과 지역통일전선의 관계, 그리고 전위조직의 반제혁명역량이 수행하는 임무 등에 관련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필자는 이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논문에서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겠습니다.≫(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인 조선노동당은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망라하는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영도하는 최고의 영도조직으로 됩니다. 다른 한편, 전위조직은 신식민지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총집결하는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영도하는 지역통일전선의 영도조직입니다.≫(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그렇다면 조국통일운동의 주도적 역할은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그 역할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기치로 든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이 담당합니다.≫(4.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또한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사업을 주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정파별, 지역별, 단위별로 분산성과 분열성을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운동세력의 영도적 구심체인 전위조직과의 관계도 아직 미완상태에 있습니다.≫(5.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수정)

≪둘째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주체는,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반제혁명역량을 주도역량으로 하고, 그리고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연대・집결한 광대한 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방조역량으로 하여 자기의 역량을 편성합니다. 또한 조국통일위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기치로 든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조국통일역량을 주도역량으로 하고, 그리고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든 전국적 통일전선의 통일애국역량을 방조역량으로 하여 자기의 역량을 편성합니다.≫(5.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수정)

≪신식민지에서 전술적 공세를 취하는 것은, 전위조직을 영도적 구심체로 하고 민족민주운동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을 보전・축적하고 점차 확대・강화시키면서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정치적으로 타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7. 선군혁명전략의 당면목표와 6.15공동선언의 지향)

≪전국적 통일전선을 영도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력이 미제의 신식민체제에 가로막혀 신식민지에까지 진공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조건에서, 신식민지에서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투쟁을 주동적으로 전개하는 임무는 전위조직을 지역통일전선의 영도적 구심체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수행해야 합니다.≫(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신식민지에서 정권문제를 해결하는 경로는,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반제혁명역량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힘을 합해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하고 식민통치기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조건에서 지역통일전선이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는 경로를 밟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연합・단결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근본원인은, 지역통일전선의 영도적 구심체인 전위조직이 자기의 영도력을 강력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필자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논문에서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논하지 않겠습니다.≫(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한편 ≪두 개 전선≫의 다음과 같은 표현이 ≪한민전≫의 성격과 관련하여 논쟁을 일으킨 바 있다.

≪(1985년 7월에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으로 개칭된 남측의 반제자주역량에 관한 서술은 지면 제약상 다 →

음 기회로 미룬다.)≫(2. 민족민주전선의 세계성과 역사성)

첫째, 우리의 하나의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하나의 당은 조선노동당이다. 하나의 민족국가에 하나의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 존재한다는 일국일당제는 혁명운동의 불변의 원칙이다. 우리에게 하나의 민족국가는 전체조선민중의 총의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합법적으로 건설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우리에게 하나의 당은 남과 북의 노동당이 합당하며 건설된 조선노동당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의 하나의 나라라는 점은 미제가 일으킨 6.25전쟁이나 미제의 남측지역 강점으로 달라질 수 없으며 조선노동당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유일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다. 식민지에서 건설되고 있는 진보적 대중정당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 아니라 통일전선적 합법정당으로서 계급적으로는 소자산계급의 정당이다. 미래에도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은 조선노동당 하나뿐이다.

둘째,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은 모두 수령의 정치적 무기이다. 수령, 당, 인전대, 대중으로 이어지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서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은 수령과의 관계에서는 수령의 정치적 무기이며 인전대와 대중과의 관계에서는 영도적 정치기관이다.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은 모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수령으로, 최고영도자로 높이 모시는 영도조직, 영도적 구심체이다.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은 모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유일적 혁명영도체계에서 불가분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

세째,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은 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령과 지도이념, 혁명전통이 완전히 동일하다.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수령으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항일무장투쟁을 혁명전통으로 삼고 있다. 다만 사회계급적 기반에서 조선노동당은 혁명기지와 식민지를 포괄하는 전체조선의 민중을 주체로 삼는다는 데 비해 전위조직은 오직 식민지민중만을 주체로 삼는다는 데 차이가 있다. 당의 임무에서 차이는 여기에 기인한다. 조선노동당의 임무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조국통일운동, 그리고 3대혁명을 전일적으로 영도하는 것이라면 전위조직의 임무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조국통일운동에서 식민지민중을 조직동원하는 것이다. 한편 전위조직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영도체계에 결합되어 있는 혁명조직이다.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렇듯 하나의 혁명영도체계에 결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네째, 조선노동당은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할 당이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 당이다. 조선노동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조선의 유일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 될 것이다. 조선혁명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과도적으로 식민지(남측)의 지역통일전선을 영도하는 전위조직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영도체계에 결합되어 있는 혁명조직이다. 전위조직은 조선노동당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영도자로 모시고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역사를 혁명전통으로 삼고 있다. 통일혁명이 전진하면 전위조직이 영도하는 지역통일전선은 조선노동당이 영도하는 전국적 통일전선으로 해소, 통합될 것이다. 통일혁명이 승리하면 혁명기지가 전국적 범위로 확대되고 식민지는 없어질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구별도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다섯째, 조선노동당은 전략적 공세를 취하고 전위조직은 전술적 공세를 취한다. 조선노동당은 조선인민군을 동원하며 미제국주의를 군사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적 공세를 취하고 전위조직은 지역통일전선을 영도하며 전술적 공세를 취한다. 한편 조선노동당은 지역통일전선이 해소, 통합될 전국적 통일전선을 통한 공세도 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일전선을 통한 공세는 혁명무력의 공세에 비해 전술적 공세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전민봉기를 통한 공세는 잔여 식민지체계와 괴뢰정권을 청산하는 의미에서의 전략적 공세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과 전국적 통일전선을 영도하며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영도조직은 오직 조선노동당뿐이다.

여섯째, 전위조직의 영도력이자 지역통일전선의 역량이다. 전위조직은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영도하는 혁명조직이다. 그러므로 지역통일전선의 역량과 수준에는 전위조직의 영도력이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전위조직의 노선과 정책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전위조직을 따르는 지도핵심들이 이를 관철하지 못하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오늘 남측 민족민주세력이 정파별, 지역별, 부분별 분산성과 분열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 전위조직이 자신의 영도력을 강력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전위조직을 따르는 지도핵심들이 응당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족민주대오내의 지도핵심들이 올바른 전위조직관을 확립하고 전위조직과의 결합력을 제고하며 전위조직의 노선과 정책을 적극 관철할 때 비로소 지역통일전선을 비약적으로 장성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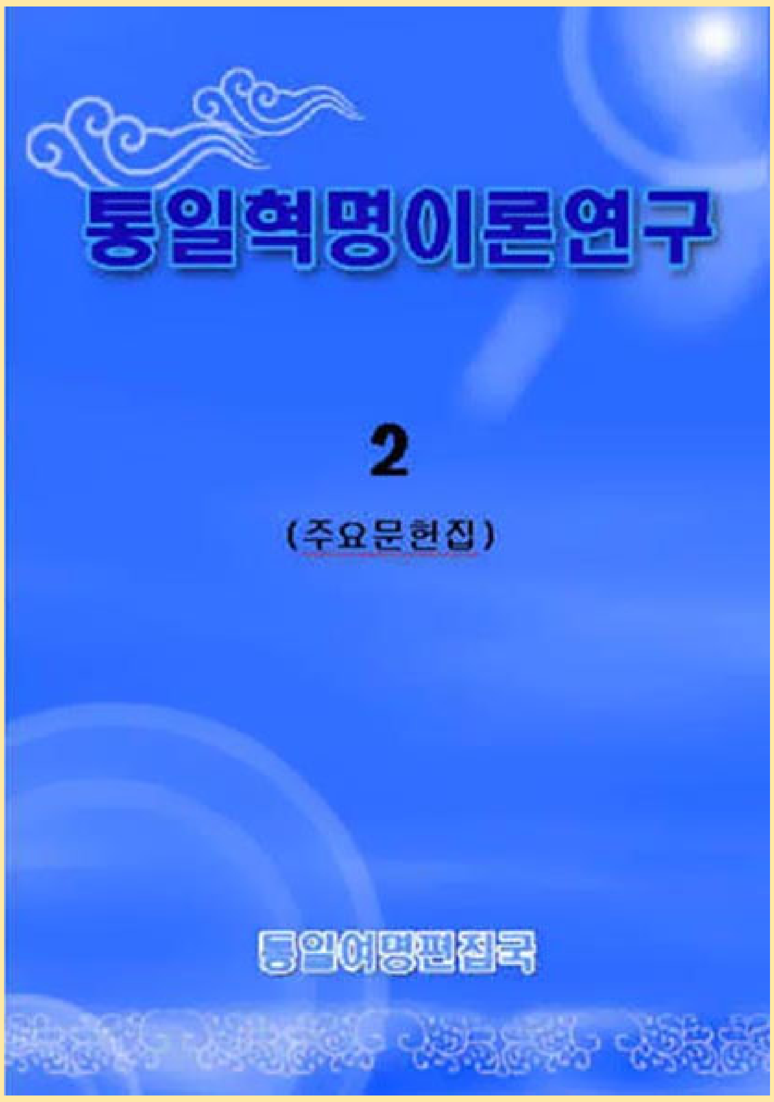
일곱째, ≪한민전의 반제자주역량≫은 ≪한민전과 지역통일전선≫이다. ≪두 개 전선≫의 ≪한민전으로 개칭된 남측의 반제자주역량≫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다. 이는 ≪한민전은 전위조직이 아니라 민족민주전선≫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한민전의 반제자주역량≫ 또는 ≪한민전이라는 반제자주역량≫이라는 표현이다. 여기서 ≪한민전의 반제자주역량≫(≪한민전이라는 반제자주역량≫)에는 한민전만이 아니라 지역통일전선이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열 가지 논제≫에서 ≪조선노동당의 반제자주역량≫을 논하면서 여기에는 조선인민군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시 말하여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군이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한민전과 지역통일전선도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결국 ≪두 개 전선≫의 한민전 관련 표현은 다음의 의미인 것이다. 전위조직의 명칭은 1985년 한민전으로 개칭되었다. 한민전은 지역통일전선의 영도조직이다. 한민전을 영도조직으로 하는 지역통일전선은 남측의 반제자주역량이다. ≪열 가지 논제≫가 발표됨으로써 최성원동지가 한민전을 전위조직으로 보는가 민족민주전선으로 보는가 하는 논쟁은 정리되었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광 고

통일혁명이론연구2

통일여명 편집국 (편집국 보도 89호)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의 발표 이후 조국의 통일혁명정세는 전국적 범위에서 가속도적으로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통일혁명이론에 대한 연구도 하루가 다르게 심화발전하고 있습니다.

통일혁명이론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통일혁명실천도 제대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통일여명 편집국은 이런 이유에서 ≪통일혁명이론연구≫자료집을 연속 발간합니다.

≪통일혁명이론연구2≫는 그 중 통일혁명이론과 관련있는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문헌집입니다.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은 통일혁명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영도조직입니다.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노선과 정책에는 통일혁명의 수령의 사상이 구현되어 있으며 우리 조선민중의 자주적 요구와 창조적 지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노선과 정책은 통일혁명의 역사상 한번도 오류를 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통일혁명이론을 연구하는데서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노선과 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 과정으로 됩니다.

우리는 이 문헌집이 동지들의 통일혁명이론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